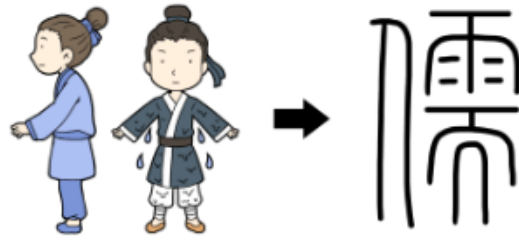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儒

선비 유

儒자는 '선비'나 '유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儒자는 人(사람 인)자와 需(구할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선비란 학식이 있는 학자를 일컫는 말이다. 조선이 유교를 이념적 기반에 둔 이후 유교나 선비는 조선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 儒자에는 그러한 의미가 잘 담겨있다. 儒자에 쓰인 需자는 '필요하다'나 '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뜻을 가진 需자에 人자가 더해진 儒자는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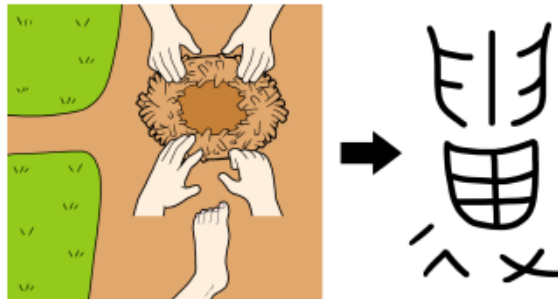
儒

소전

儒

해서

회의문자①



遺

남길 유

遺자는 '남기다'나 '끼치다', '버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遺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貴(귀할 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貴자는 양손에 흙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귀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런데 遺자의 금문을 보면 새집을 떨어트리거나 버리는 遺(떨어뜨림)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遺자의 본래 의미도 '버리다'나 '떨어뜨리다'였다. 후에 遺자는 '남기다'나 '전하다'와 같은 뜻을 갖게 되었는데, 길 위에 떨어트린 물건을 선조들이 남기고 간 유산에 비유했기 때문이다.

遺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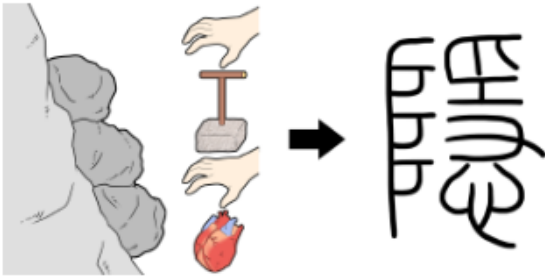
遺

소전

遺

해서

회의문자 ①



隱

숨을 은

隱자는 '숨다'나 '음흉하다', '수수께끼'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隱자는 阜(부: 언덕 부)자와 隱(삼갈 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隱자는 '삼가하다'나 '조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조급함을 뜻하는 隱자에 阜자가 결합한 隱자는 조급히 산속으로 숨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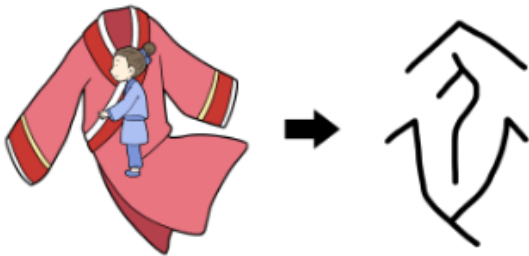
隱

소전

隱

해서

회의문자 ①



依

의지할 의

依자는 '의지하다'나 '기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依자는 人(사람 인)자와 衣(옷 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衣자는 고대 복식을 그린 것으로 '옷'이라는 뜻이 있다. 여기에 人자가 더해진 依자는 본래 '옷을 입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였다. 依자의 갑골문을 보면 옷 안에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추위를 피하고자 옷을 입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옷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依자는 후에 '(옷에)의지하다'나 '기대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依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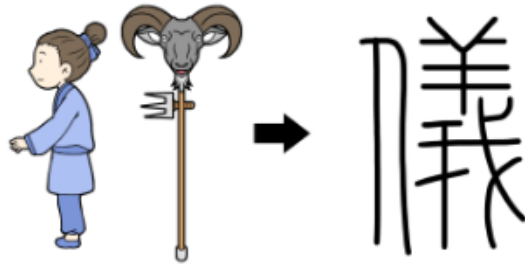
依

소전

依

해서

회의문자①



儀

거동 의

儀자는 '법도', '예절', '본보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儀자는 人(사람 인)자와 義(옳을 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義자는 창 위에 양의 머리를 꽂아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양의 뿔이 달린 창은 '권위'를 상징했다. 그래서 義자는 그러한 권위를 지닌 자가 옳은 일을 행한다 하여 '옳다', '의롭다'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의롭다'라는 뜻을 가진 義자에 人자가 더해진 儀자는 '의로운 사람이 갖춘 행동'이나 '본보기'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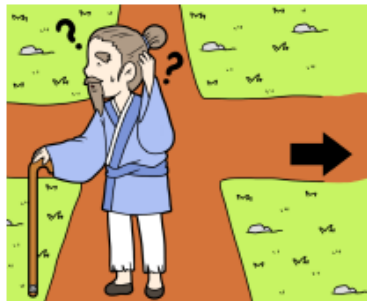
儀

소전

儀

해서

회의문자①



疑

의심할 의

疑자는 '의심하다'나 '헛갈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疑자는 匕(비수 비)자와 矢(화살 시)자, 疋(발 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疑자는 이러한 글자의 조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갑골문에 나온 疑자를 보면 지팡이를 짚고 고개를 돌린 사람이 그려져 𠂔 있었기 때문이다. 그 옆으로는 彳(조금 걸을 척)자가 있으니 이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다. 疑자는 이렇게 길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으로 '헛갈리다'나 '주저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후에 '의심하다'나 '믿지 아니하다'와 같은 뜻이 파생되었다.

疑

갑골문

疑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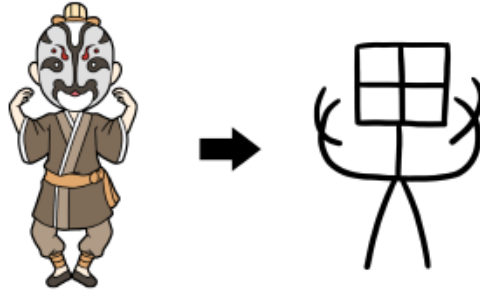
疑

소전

疑

해서

상형문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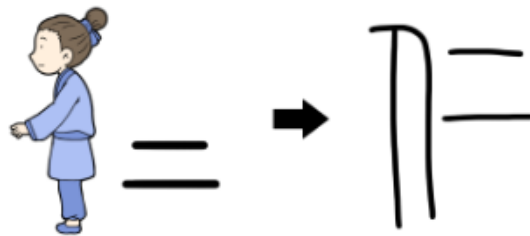
異

다를 이:

異자는 '다르다'나 '기이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異자는 田(밭 전)자와 共(함께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異자의 갑골문을 보면 얼굴에 가면을 쓴 채 양손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異자는 얼굴에 이상한 가면을 쓴 사람을 그린 것이다. 일반 인들은 하지 않는 행동이니 이상할 법도 하다. 異자는 이러한 의미를 담은 글자로 '다르다'나 '기이하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참고로 한자에서 가면을 쓴 사람은 보통 제사장이나 귀신을 뜻하지만 異자는 예외에 해당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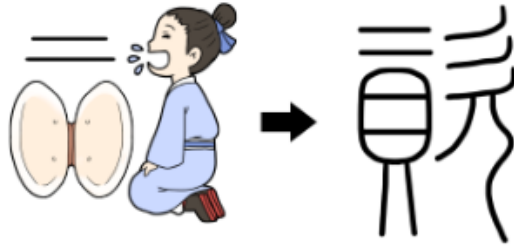
仁

어질 인

仁자는 '어질다'나 '자애롭다', '인자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仁자는 人(사람 인)자와 二(두 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仁자에 쓰인 二자는 '두 사람'이라는 뜻을 위해 쓰인 것이다. 仁자는 본래 두 사람이 친하게 지냈을 뜻했던 글자였다. 그러나 공자가 仁을 도덕의 중심으로 삼은 후부터는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대표하는 글자로 쓰이게 되었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資

재물 자

資자는 '재물'이나 '자본', '바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資자는 次(버금 차)자와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次자는 입에 침을 튀겨가며 말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지금의 資자는 재물을 뜻하는 貝자가 아래에 있지만 소전에서는 次자 앞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니 소전에서의 資자는 마치 재물을 앞에 두고 침을 흘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資자는 이렇게 누구나 탐하는 재물을 표현한 글자이다.

資

소전

資

해서

회의문자①



姿

모양 자:

姿자는 '맴시'나 '자태', '모양'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姿자는 女(여자 여)자와 次(버금 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소전에서는 女자가 좌측에 次자가 우측에 次 자리 잡고 있었다. 次자는 침을 튀기며 말하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침을 튀기는 사람과 女자가 결합한 姿자는 여자 뒤에서 잔소리를 내뱉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여자가 교양이나 자태를 바로잡도록 잔소리하는 모습인 것이다.

姿

소전

姿

해서